



미국 우주기업 액시엄스페이스의 네 번째 유인 임무 'AX-4'가 11일(현지 시간) 한국 초등학생 20명의 미술 작품을 싣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된다. 지난해 열린 청소년 우주과학경진대회 선정작 일부.

# '우주 상상력' 韓 초등생 그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한국 초등학생들의 순수 창작 미술 작품 20점이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한다. 미국 우주기업 액시엄스페이스의 네 번째 유인 임무 'AX-4' 발사가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진행된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발사가 현지 기상악화(강한 바람)로 NASA와 스페이스X의 안전 검토 끝에 하루 연기된 것이다.

이번에 우주로 향하는 그림들은 지난해 보령(옛 보령제약)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청소년 우주과학경진대회 '휴먼스 인 스페이스(HIS) 유스'를 통해 선정된 결과물로, 2008년 이소연 박사가 이후 17년 만에 한국의 창작품이 우주정거장에 실리는 사례이자 순수 예술 창작품이 우주 공간에서 최초로 공식 소개되는 순수 예술 창작물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사될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는 같은 회사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실리고 이 안에 한국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린 우주 그림 20점이 함께 실린다.

## 美 액시엄스페이스 네번째 유인 임무 'AX-4'에 청소년 우주과학경진대회 선정작품 20점 실려

이번 임무에는 미국, 인도, 폴란드, 헝가리 등 4개국 우주비행사(페기 윌슨, 존 소프너, 레케시 사르마, 파브리시오 잔보티)가 참여해 ISS에서 최대 14일간 머무르며 과학 실험, 지구관측, 민간 기업의 기술 프로젝트 등 총 60여 건의 국제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액시엄스페이스는 NASA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022년 세계 최초의 민간 ISS 유인우주비행(AX-1)을 성공시킨 기업으로, 우주정거장 민간화·상업화, 우주관광, 우주 연구·교육 등 다양한 민간 우주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AX-4 임무 역시 액시엄스페이스가 주관하

고, 스페이스X 크루드래곤 우주선이 ISS까지 승무원을 수송한다.

ISS에 도착한 4명의 우주비행사는 실제 임무 수행 중에 한국 어린이 그림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지구와의 영상 연결로 참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교육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AX-4 임무를 지휘하는 페기 윌슨 사령관은 2008년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ISS에 도달했을 때 함께 역사적 귀환했던 우주비행사로, 그는 14일 ISS 현장에서 직접 한국 어린이들의 그림 전시를 소개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내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에 HIS 유스 수상자를 포함해 참가 가족, 일

반 시민들이 ISS 현장 전시 라이브를 지켜볼 계획이다.

한국 아이들의 상상력이 담긴 미술 작품이 우주에 실리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세대가 우주를 꿈꾸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우주 산업과 예술, 교육이 결합된 시대적 변화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보령 김정균 대표는 "미래 우주시대의 주인공이 될 한국 아이들에게 상상력·꿈을 심어주는 공익적 프로젝트로 기획했다"며 "청소년과 시민들이 그림을 통해 상상력과 꿈을 우주라는 공간까지 확장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2024년 보령은 액시엄에 6000만 달러(약 816억 원)를 투자해 민간 개발과 우주의학, 공공 교육 연계사업까지 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뿐 아니라 예술, 창의 융합교육을 함께 우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쏟아 IT 정보

### 카카오 '브런치 작가 멤버십' 모집

카카오는 10일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 스토리'의 유료 구독 서비스 '브런치 작가 멤버십' 내달 출시를 앞두고 참여 작가를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멤버십은 독자가 마음에 드는 작가를 구독하고, 작가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월 3천 900원에 감상하는 유료 구독 기능이다. 멤버십은 구독자 30명 이상, 3개월 내 글 3개 이상을 발행한 작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유료 구독자 수에 따라 구독료를 정산받는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대표 작가 20여명과 멤버십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신규 작가 수는 82%, 전체 글 수는 41%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 KT, 인터넷 가입자 1천만명 돌파

KT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1천 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1994년 대한민국 최초 상용 인터넷 서비스 '코넷'(KORNET)을 시작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지 약 30년 만이다. KT는 1천만 가입자 달성을 기념해 '인터넷도 역시 KT 페스티벌' 고객 감사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진행한다.

KT 초고속 인터넷을 3년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거나 구형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베이직(500Mbps)'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기가 와이파이 홈 공유기'를, '에센스(1Gbps)' 이상 가입자에게는 '와이파이 7D 공유기'를 3년 약정 시 무료 제공하는 혜택을 선착순 5만명에게 제공한다.

### SKT, 20일까지 전체 유심 교체

SK텔레콤이 금주 내 유심 19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해 이달 20일까지 전체 유심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모든 예약 고객에게 교체 일차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 목표다.

SK텔레콤은 9일까지 17만 명이 유심을 추가로 교체해 누적 교체자는 680만명으로 늘었고 잔여 예약자는 280만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일주일 내 오지 않은 가입자는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만 지났어도 교체는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신규 영업 재개 시점과 보안 강화 전략 및 고객 보상 방안에 대한 발표가 모두 이달 말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 국립광주과학관 '블랙홀로 가는 여행'

### 필 사이언스 강연...14일 상상홀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분관 1층 상상홀에서 '블랙홀로 가는 여행'을 주제로 제38회 필 사이언스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국내 블랙홀 연구 전문가인 우종학(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연사로 나서 복잡한 블랙홀의 세계를 누구나 알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블랙홀로 가는 여행'은 국립광주과학관의 '지구 너머의 세계' 특별전과 연계된 과학 대중 강연으로, 참가자들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블랙홀과 그 속에 숨겨진 우주의 신비·현대 천문학의 최전선에 다가설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참가비는 1000원이다.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잔여석에 한해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이뤄진다.

현장 참여자 중 만족도 조사에 응한 이들에



게는 '지구 너머의 세계' 특별전 무료입장권, 그리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우종학 교수 저서 '우주별 키킵' 등 경품이 제공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스크린 사용 시간 길수록 어린이 정서·행동 문제 우려

### 스트레스 해소 위해 더 의존 악순환

디지털기기 스크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린이에게 정서 및 행동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더 많은 스크린 사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퀸즐랜드대 마이클 노에델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10일 미국심리학회(APA) 학술지 심리학 회보(Psychological Bulletin)에서 전 세계 29만2천여명의 어린이 데이터가 포함된 117개 연구를 메타 분석해 스크린 사용 시간과 어린이 정서·행동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에델 교수는 "이 연구에서 스크린 사용 시간 증가가 정서 및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크린에 더욱 의존하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오락에서 숙제, 친구들과 메시지 주고 받기까지 어린이들의 스크린 사용이 점점 늘고 있으며 스크린 사용과 공격성, 불안, 자신감 저하

는 사회·정서적 문제 간 관계 파악을 위해 10세 미만 어린이의 스크린 사용과 사회·정서적 문제를 최소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스크린 사용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회·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사회·정서적 문제를 겪는 아이들의 경우 다시 스크린 사용 시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나이에 따라 0-5세보다 6-10세 어린이들이 스크린 사용이 많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어린이들이 스크린 사용이 많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남자 어린이들은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스크린 사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스크린 콘텐츠 중에서는 게임이 교육용 또는 여가용 콘텐츠보다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시간이 길수록 사회·정서적 문제 위험이 커졌고, 사회·정서적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GFA 보험GA협회